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애착 유형 분류*

이동귀* 이수란 김혜영
연세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집단(N=128)을 대상으로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 방법을 실시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어떠한 애착 집단이 형성되는지는 알아보았다. Bartholomew(1990)가 개념화한 네 가지 애착 하위 차원점수로 이루어진 프로파일을 분석한 결과, 불안정-회피형, 안정-의존형, 그리고 '양가형'의 세 집단이 나타났다. 집단 간에 정신건강지표와 자기 가치감 평가 소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한 결과, 양가형과 불안정-회피형이 안정-의존형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적응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이 중 양가형이 대인 민감성과 타인의 피드백에 대한 예민성을 보이면서 가장 부적응적인 특성을 보였다.

주요어 : 애착, 애착유형,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 정신건강, 자기 가치감 평가 소재

애착에 대한 Bowlby(1969, 1973, 1979, 1980)의 이론은 대인관계 기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을 뿐 아니라, 여러 심리적 현상들을 설명하는 유용한 틀을 제공하였다.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애착유형이 불안정할수록 대인관계의 어려움(Horowitz, Rosenberg, & Bartholomew, 1993; Wei, Vogel, Ku, & Zakalik, 2005)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심리 및 신체적 건강의 측면에서도 불안정 애착은 우울(Burge 등, 1997; Wei, Mallinckrodt, Larson, & Zakalik, 2005), 불안(Chorpita & Barlow, 1998; Vertue, 2003), 약물남용, 섭식장애(Burge 등, 1997), 수면장애(Carmichael, & Reis, 2005) 등과 높은

상관이 있음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반면 안정 애착은 자존감을 포함한 긍정적인 자기개념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Bartholomew & Horowitz, 1991; Brennan & Morris, 1997; Bylsma, Cozzarelli, & Sumer, 1997; Griffin & Bartholomew, 1994; Pietromonaco & Barrett, 1997), 또한 심리적 안녕감(Love & Merdock, 2004), 대처행동, 자신감(Lopez & Gormley, 2002) 등의 심리적 적응과도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 더 나아가 학교 장면에서 애착과 학업 성적 등 개인수행과의 관련성도 밝혀진 바 있다(Larose, Bernier, & Tarabulsky, 2005; Moss & St-Laurent, 2001).

*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BK21 인지 및 심리과학 전문인력양성 및 실용화 사업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본 연구 수행에 도움을 준 기쁘다, 김민정, 최혜연, 신지은 선생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 교신저자 : 이동귀,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 02) 2123-2437,

E-mail : lee82@yonsei.ac.kr

이와 같이 인간의 많은 심리·행동적 현상들을 설명해 주는 애착연구들은 Bowlby(1973)의 내적 작동 모형(internal working model)에 기초를 두고 있다. 애착이론에서 중요한 전제는 초기의 부모-자녀간의 관계가 이후 성인 대인관계 및 애정관계의 원형(prototypes)을 형성한다는 것이다(Waters 등, 1991). 즉, 생애 초기의 애착 양식은 다양한 상황에서 부모가 어떻게 행동할 지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며, 이런 기대들은 발달과정을 거치면서 일상생활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이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의 양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기대 및 태도는 개인의 내적 작동 모형을 형성하는 중요한 바탕이 되는데, 이 모형은 개인이 환경에 대한 자신의 행동을 예측하고 대상과의 상호작용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는 역동적 표상을 의미한다(Bowlby, 1973). 즉, 개인은 중요한 타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타인으로부터 관심과 지지를 받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인지, 타인이 얼마나 자신에게 민감하게 반응해 줄 것인지에 대한 일련의 기대와 신념을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 개인의 대인관계상의 특징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이다(Collins & Read, 1990).

애착연구에서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가 애착행동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특히 다양한 성인 애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유아의 애착행동은 언어보다는 주로 직접적인 행동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일상이나 실험실 상황에서 관찰이 쉽다(Ainsworth 등, 1978; Waters & Deane, 1985). 반면 성인의 애착행동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유아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부모를 찾고 떨어지지 않으려는 행동을 보이지만, 성인은 애착 대상과 떨어지지 않으려는 행동을 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때로 부적절하기도 하다. 또한 성인에게는 부모 뿐 아니라 이성친구나 동성 친구와 같이 애착 대상 역시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애착행동을 측정하는 데 난점이 있다. 따라서 성인 애착에 대한 이해는 직접적인 행동관찰보다는 면담이나 자기 보고 설문지를 통해 어떤 애착유형이 존재하는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Hazan & Shaver, 1994).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Bowlby(1973)의 내적 작동 모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우선 Main과 Goldwyn(1998)은 성인 애착 면접 방법을 통해서 애착 유형을 안정형, 회피

형(dismissive), 그리고 몰두형(preoccupied)으로 구분하였다. Hazan과 Shaver(1987)는 성인의 애정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세 가지 애착 유형(안정형, 불안-양가형, 회피형)을 고안하였다. 이 세 유형은 Ainsworth, Blehar, Waters 및 Wall(1978)이 제시한 부모와 아동 간에 나타나는 애착유형을 바탕으로 구성되었고, 일반적으로 개인이 중요한 관계를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대한 자기 보고식 설문을 통해 측정되었다. 세 유형 중 안정형 애착을 보이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다른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걱정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불안-양가형의 사람들은 과도한 친밀감을 원하지만 거부당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마지막으로 회피형 유형은 친밀한 관계에서 불편감을 느끼며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 한다(Hazan & Shaver, 1987). 그러나 Hazan과 Shaver의 애착유형은 성인의 일탈행동이나 병리적 행동들을 잘 설명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고(Crowell & Treboux, 1995), 내적 작동 모형에 근거하기는 했지만 자기상과 타인상의 뚜렷한 구분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Pietromonaco & Barrett, 2000).

한편, Bartholomew와 동료들은 Bowlby(1969, 1973, 1979, 1980)의 내적 작동 모형의 개념을 더욱 정교화하고, 특히 자기상에 대한 긍정성과 부정성, 타인상에 대한 긍정성과 부정성의 두 가지 차원의 조합으로 애착유형을 네 가지(안정형, 의존형, 두려움형, 거부형)로 개념화함으로써(Bartholomew, 1990; Bartholomew & Horowitz, 1991) 이후 성인 애착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자기상에 대한 긍정성은 자기 가치감을 내재화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타인상에 대한 긍정성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편안하고 지지적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정도를 나타낸다(Bartholomew & Shaver, 1998). 긍정적 자기상과 긍정적 타인상의 조합인 안정형 애착유형은 내재화된 자기 가치감과 친밀하고 편안한 타인관계를 특징으로 한다(Bartholomew & Shaver, 1998). 의존형 애착유형은 부정적 자기상과 긍정적 타인상의 조합으로, 이들은 과도하게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승인을 받으려하고 자신들이 기대하는 대로 타인이 반응할 때만 안정감을 느낀다. 이러한 특성은 타인과 높은 수준의 친밀감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와 동시에 타인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즉

양가감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Pietromonaco & Barrett, 2000). 반면, 두려움형 애착유형은 부정적 자기상과 부정적 타인상의 조합으로, 일견 의존형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특성을 보인다. 하지만 이들은 근본적으로 타인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하여 생기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타인과 친밀한 관계 자체를 회피한다. 마지막으로 거부형 애착유형은 긍정적 자기상과 부정적 타인상의 조합으로, 이들 역시 부정적인 타인상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피한다. 하지만 방어적으로 친밀한 관계의 가치를 거부함으로써 자기 가치감을 유지하려는 특성을 보인다(Bartholomew & Shaver, 1998).

Bartholomew의 개념화를 바탕으로 한 애착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그동안 많이 사용되어온 도구로는 대인관계 질문지[Relationship Questionnaire(RQ), Bartholomew & Horowitz, 1991]와 대인관계 척도 질문지[Relationship Scales Questionnaire(RSQ), Griffin & Bartholomew, 1994]가 있다. RQ는 4개의 짧은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은 자신에 대한 긍정성과 부정성, 타인에 대한 긍정성과 부정성의 두 차원을 토대로 안정형, 두려움형, 의존형, 거부형의 네 가지 애착유형을 반영하며 피검자는 각 단락이 자신을 얼마나 잘 묘사하는지에 대해 평정하게 된다. RSQ는 RQ와 비슷하지만, 단락 대신 일련의 문장들에 대해 답하는 방식을 취하며, 안정형, 거부형, 두려움형, 의존형에 해당하는 문항이 각각 4-5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질문지는 자기상과 타인상 두 차원으로 구분되는 것이 특징이다. 자기상의 긍정성 정도는 긍정적 자기상의 점수[안정형 점수+거부형 점수]에서 부정적 자기상의 점수[두려움형 점수+의존형 점수]를 차감하여 계산되며, 타인상의 긍정성 정도는 긍정적 타인상의 점수[안정형 점수+의존형 점수]에서 부정적 타인상의 점수[두려움형 점수+거부형 점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러한 성인 애착의 네 가지 유형은 Bartholomew(1990)의 개념화 이후 이론에 바탕을 둔 명확하고 간명한 유형분류라는 장점으로 인해 애착과 사회불안, 정서조절,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등과 관계를 살펴보는 여러 연구에서 사용되어 왔다(김해진, 신현균, 홍창희, 2008; 신혜린, 이기학, 2008; 유상미, 이승연, 2008). 장휘숙(1997)은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애착의 여러 유형을 비교한 결과 Bartholomew

와 Horowitz의 네 차원을 이용한 분류가 다른 유형 분류에 비해 심리측정적 속성에 있어서 우월함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성인애착의 네 차원과 다양한 변인들(예, 관계만족, 스트레스의 지각과 대처방식, 정서조절, 정신병리 등)과의 관련성을 살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동시에 성인애착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의문 역시 제기되고 있다. 그 출발은 도구의 개발자인 Bartholomew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웹사이트(<http://www.sfu.ca/psyc/faculty/bartholomew/faq.htm>)에서 RQ와 RSQ를 사용할 때 네 가지 유형의 점수 자체가 애착 유형(type)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애착에서 중요한 차원(dimension)을 측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라고 암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유형과 차원은 서로 다른 것이며 이 차이를 이해하지 않고 RQ 혹은 RSQ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한 점수만을 기초로 특정 개인이 특정한 애착 유형에 속한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불연속 범주(noncontinuous category)인 애착 유형을 연속적인 차원(continuous dimension)인 네 점수를 비교하여 이 중 가장 큰 점수를 토대로 특정인의 애착 유형을 도출할 수는 없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기존의 애착 유형 분류 방식에 의하면 한 개인의 안정형 차원 점수가 17점이고 나머지 세 차원 점수가 각각 16점인 경우에도 그 개인은 안정형 애착 유형이라고 결론 내리게 되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한 가하는 의문이 생긴다. 또한 안정형 점수가 17점이고 나머지 세 차원 점수가 각각 1점인 사람들과 동일한 애착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가? 또한 기존의 방식에서는 네 개의 차원 중 두 개의 차원 점수가 동일하고 가장 높은 점수일 경우에는 이 개인은 애착 유형을 정의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다면 Bartholomew와 동료들이 애착의 내적 작동 모형에 근거해서 만든 RQ 혹은 RSQ로는 타당한 애착 유형을 추출해 낼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기존의

1) 범주(category)는 불연속 유무를 말하고 차원은 연속적인 잠재 요인을, 그리고 유형(type)은 실제로 구분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정상인과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를 범주로 나누면 이 둘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유목에 의한 분류이지만 정상인이나 정신질환 환자가 연속적인 동일 차원에서 그 심각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은 차원상의 정도에 따른 분류라고 할 수 있다.

방식이 최고점을 보인 단일 차원 점수에 근거해서 애착 유형을 결정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고안할 수 있다면 이 도구들은 여전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용한 대안은 이들에 점수의 프로파일(profile)을 분석하여 이 프로파일의 기저에 어떠한 잠재적 군집 혹은 집단이 존재하는가를 살펴보고 이 군집의 특성을 정의함으로써 어떤 애착 유형군이 존재하는지를 경험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서 가능하다.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 LPA)은 잠재적 군집 분석의 한 종류로서, 관심 변인의 하위점수들의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집단을 나누고 집단의 수에 따른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 분석 방법의 하나이다(Lazarsfeld & Henry, 1968; McLachlan & Basford, 1988; Vermunt & Magidson, 2002). 이 방법은 임의적(arbitrary)인 특정 기준 점수로 구분된 집단이 아닌 연구자가 관심을 둔 변인들을 기준으로 한 자연발생적 집단(natural groupings)을 탐색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집단 혹은 유형을 나누는 유용한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애착의 내적 작동 모형에 근거한 애착의 네 차원을 측정하는 도구로 여러 연구에서 사용되어 온 Bartholomew와 동료들이 개발한 RSQ의 네 차원점수가 형성하는 프로파일의 잠재적 군집을 탐색함으로써 한국 대학생에서 어떤 자연발생적인 애착 유형이 존재하는지를 경험적으로 밝히고 이 잠재군집들이 정신건강의 지표(예, 우울, 불안, 대인 민감성)와 자기 가치감 평가의 소재(locus of evaluation : LOE)³⁾의 측면에서 어떤 차별

2) 여기서 자연발생적이란 의미는 특정한 가설을 가진 상태에서 특정 집단이 추출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 대상이 되는 표본의 특징(sample specific characteristics)에 따라서 몇 개의 집단이 추출될지를 모른 상태에서 탐색적으로 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시사한다.

3) 자기 가치감 평가의 소재는 Rogers(1951)가 제안한 개념으로, “개인의 가치나 규범이 타인의 평가와 기대에 근거하는지 [외적 평가 소재] 아니면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이루어지 [내적 평가 소재]의 정도(the extent to which [one’s] values and standards depend upon the judgments and expectations of others, or are based on a reliance upon [one’s] own experience; p.156)”로 정의하였다. Rogers(1948)는 외적인 LOE가 내적인 LOE로 이행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개인은 외부로부터 받는 비판과 부정적인

적인 특성을 보이는지를 MANOVA를 사용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대학생 시기는 성인기 초기로 이성 관계가 활발하게 진행되며 애착대상의 다양화가 더 활발해지는 시점이다. 선행연구들은 애착 유형이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 및 학업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Larose, Bernier, & Tarabulsy, 2005; Wei, Mallinckrodt, Larson, & Zakalik, 2005). 따라서 한국 대학생들의 애착 유형에 대한 이해 및 이들 유형과 정신건강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함으로써 후속 애착 연구에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서울 소재의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128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여 설문을 작성하였다. 이 중 남학생은 55명(43%), 여학생은 73명(57%)이었으며,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연령은 평균 23.47세($SD=4.9$)였다. 설문은 인터넷 웹페이지를 통하여 작성하게 하였으며, 약 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측정도구

애착유형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Griffin과 Bartholomew가 1994년에 제작한 대인관계 척도 질문지(Relationship Scales Questionnaire : RSQ)를 사용하여 성인애착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Hazan과 Shaver(1987)의 성인애착 척도(Hazan and Shaver’s Questionnaire),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성인애착 척도-관계 질문지(Relationship Questionnaire : RQ) 그리고 Collins와 Read(1990)의 성인애착 질문지(Adult Attachment Scale : AAS)를 참고하여 제작된 것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느낌을 고려하여 각 문항이 자신에게 얼마나 해당되는지의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에 표시한다. 이 질문지는 안정형, 두려움형, 거부형, 의존형 등 애착유형에 따른 하위 문항들의 총합을 구하여 네 가지 애착유

피드백, 그리고 거부에 대해 불안하거나 회피하지 않으며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형의 점수를 각각 구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네 가지 유형의 애착점수를 프로파일 분석의 군집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문항분석 결과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측정도구

참여자들의 정신건강 상태는 간이증상검사(The Brief Symptom Inventory : BSI, Derogatis & Melisaratos, 1983)를 사용하여 측정했다. 이 도구는 간이정신진단검사지(Symptom Checklist 90-Revision SCL 90-R)의 단축형으로, SCL 90-R과 높은 상관을 보여 타당성이 검증되었다(정신증 $r=.92$, 적대감 $r=.99$, Derogatis, 1977). BSI는 총 5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개의 증상(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및 정신증)에 대해 알 수 있다. 응답자는 검사 당일을 포함하여 지난 7일 동안의 심리적 상태를 정도에 따라 리커트식 5점 척도(1=전혀 이렇게 느끼지 않는다, 5=자주 이렇게 느낀다)로 응답한다. 국내에서는 김광일, 김재환 및 원호택(1984)이 한국판 표준화 작업을 마쳤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7이었다.

자기 가치감 평가소재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자기에 대한 평가소재(LOE)를 측정하기 위하여 Bucur와 Lee(2006)가 개발한 Locus of Evaluation Inventory(LEI)를 한국어로 번안·타당화한 것(Lee, Lee, & Park, 2008)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6점 리커트 형식(1=매우 동의하지 않음, 6=매우 동의함)으로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외적 LOE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척도는 낮은 자존감(Low Self-Regard), 타인의 의견에 신경쓰기(Concern for Other's Opinion), (행동적) 의존성(Dependence), 공적인 자의식(Public Self-Consciousness), 허세(Show-Off)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EI는 자존감, 신경증, 꼼꼼함, 꾸물거림 등 관련 있는 변인들과 유의미하게 높은 상관을 보였다(Bucur & Lee, 2006; 자존감 : $r=-.59$, $p<.05$; 신경증 : $r=.63$, $p<.05$; 꼼꼼함 : $r=-.23$, $p<.05$; 꾸물거림 : $r=.30$, $p<.05$). 즉, LEI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정신건강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문항들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1이었고, 분석에

서는 LEI 총점을 사용하여 평가의 소재를 측정하였다.

분석방법

애착점수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집단을 알아보기 위하여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LPA)을 실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 방법은 잠재적 군집 분석의 한 종류로서, 점수들의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집단을 나누고 집단의 수에 따른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RSQ의 네 가지 애착차원의 하위점수를 군집변인으로 투입하였고, 집단의 수와 프로파일의 형태는 Mplus 프로그램(Muthén & Muthén, 2001)으로 검증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집단의 수를 늘릴 때, 베이저안 정보준거(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 Schwarz, 1978)가 줄어드는 것이 더 적합한 모형을 의미한다. 따라서 집단의 수를 늘린 모형의 BIC가 이전 모형에 비해 줄어들지 않으면 집단을 더 이상 추가하지 않고, 이전 모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BIC 차이만으로는 집단 구분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이와 함께 집단 별 사례수의 비율과 해석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가장 설명력 있는 집단의 수를 최종 모형으로 선택한다(McCrae, Chapman, & Christ, 2006). 또한 LPA로 나누어진 집단 사이의 차이와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SPSS 12.0을 사용하여 M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애착점수 프로파일에 따른 집단 구분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BIC를 고려했을 때, 5개 집단과 3개 집단이 유력한 모형으로 제시되었는데 각 집단 사례수의 비율과 이론적 해석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5개 집단 모형 보다 3개 집단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특히 집단 5로 구분된 최소 사례수가 전체의 3.9%인 5명에 불과하여 대표성을 가진 집단 구분으로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3개 집단 모형과 5개 집단 모형을 비교하였을 때 BIC 감소폭이 매우 작게 나타난 것 또한 3개 집단 모형을 지지한다. 세 개의 집단은 그림 1과 같은 프로파일로 나누어졌다. 각 집단의 특징을 살펴보면, 집단 1에는 전체의 13.4%인 17명이 속하였고 안정차원($M=2.154$)과 의존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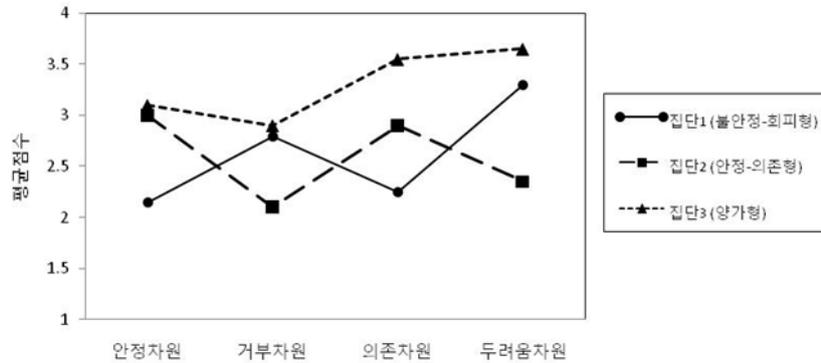


그림 1.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으로 나누어진 애착 집단

표 1.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에서 각 집단의 모형 적합도

집단의 수	BIC	BIC 차이	사례수(최대/최소)
1	1007.180		
2	978.457	28.723 감소	91 / 37
3	972.910	5.547 감소	89 / 17
5	971.432	1.478 감소	65 / 5
6	972.970	1.538 증가	67 / 5

주. 4개 집단 모형의 적합도 및 집단 구분은 가능하지 않았음.

원(M=2.292) 점수는 낮은 반면 거부차원(M=2.876)과 두려움차원(M=3.275) 점수는 높은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집단 1을 ‘불안정-회피형’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2는 89명(전체의 67.6%)으로 구성되었고, 집단 1과 상반되는 특징을 보였다. 즉, 이 집단은 안정차원(M=2.972)과 의존차원(M=2.807) 점수가 높고 거부차원(M=2.089)과 두려움차원(M=2.394) 점수는 낮게 나타난 집단이었다. 따라서 ‘안정-의존형’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집단은 22명(18.9%)으로 구성되었는데 의존차원(M=3.543)과 두려움차원(M=3.597) 점수가 특히 높은 특징을 보였으며 동시에 안정차원과 거부차원 역시 다소 상

승되어 있었다. 서로 상이한 특성을 지닌 차원들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볼 때 이 집단을 ‘양가형(ambivalent type)’으로 명명하였다⁴⁾.

집단차이 비교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을 통하여 나누어진 애착 유형 집단들이 정신건강지표와 자기 가치감 평가 소재 점수에서 유의미한 집단차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MANOVA를 실시하였다. 각 집단별로 종속변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정신건강지표와 자기 평가 소재로 조합된 종속변인에서 유의한 집단차가 나타났다. Box의 공분산행렬의 동일성 가정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F(110, 6440.211)=1.675, p<.001). Wilks의 람다 대신 Pillai의 트레이스 값을 살펴보았다. Pillai 트레이스=.449, F(20, 234)=3.384, p<.001, 부분 에타제곱=.224. 후속 ANOVA결과를 살펴보면 정신건강지표인 BSI의 10개 하위요인과 자기 가치감 평가 소재 LEI의 점수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p<.01(표 3 참조). 이러한 결과는 세 가지 애착 유형 집단들이 서로 다른 심리적 특성을 보임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어떤 집단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e의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LEI와 대인예민성 점수에서는 집단 1(불안정-회피형)과 집단 2(안정-의존형)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이 두 집단과 집단 3(양가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집단 1, 2 < 집단 3, p<.01). 강박증과 우울증 점수에서는 집단 2(안정-의존형)와 집단

4) 각 집단별 성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불안정-회피형 집단(남=4, 여=13), 안정-의존형(남=38, 여=51), 양가형(남=13, 여=9), 집단별로 성별의 분포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카이제곱(2)=4.958, p>.05). 따라서 성별을 나눈 집단비교는 실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연령변인은 10개의 종속변인 중 8개와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연령에 따른 집단비교 역시 실시하지 않았다 (유일한 예외는 연령이 신체화 점수와 .21, 그리고 불안과 .24의 약한 상관을 보인 것이었다).

표 2. 집단의 종속변수 평균, 표준편차 N=128

종속변인	불안정-회피형 (n=17)		안정-의존형 (n=89)		양가형 (n=22)	
	M	SD	M	SD	M	SD
LEI	57.00	9.57	59.83	9.20	66.50	9.53
신체화	.95	.93	.39	.45	1.08	.83
강박증	1.39	.87	.92	.68	1.80	.91
대인예민성	1.39	.98	.95	.70	2.20	1.03
우울증	1.15	1.02	.78	.70	1.60	.96
불안	1.17	.92	.55	.62	1.32	.95
적대감	1.15	.96	.56	.65	1.42	1.07
공포불안	.95	.90	.46	.47	1.06	.90
편집증	1.17	.71	.55	.51	1.37	.93
정신증	1.18	.91	.66	.54	1.40	.68

주. LEI = 자기 가치감 평가의 소재

1(불안정-회피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집단 2 < 집단 3, $p < .001$) 나머지 BSI의 하위요인들에서는(신체화, 불안, 적대감, 공포 불안, 편집증, 정신증) 집단 2(안정-의존형)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집단 2 < 집단 1, 3, $p < .05$).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은 BSI의 모든 하위요인과 LEI에서 집단 2(안정-의존형)의 점수가 다른 집단에 비하여 항상 유의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 집단 3(양가형)의 점수는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5$).

논 의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을 사용하여 개인의 내적 특성을 반영한 자연발생적 애착 유형 집단을 탐색하여 각 집단의 특성을 정신건강 지표와 자기 평가 소재의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다. 본 연구는 많은 애착 연구에서 애착 유형을 분류하는 데 사용되어온 방식, 즉 Bartholomew와 동료들이 개발한 RSQ의 네 차원 점수 중 최고 점수에 해당하는 차원을 기준으로 애착 유형으로 결정하는 기존의 방식이 애착의 범주(category)와 차원(dimension)을 혼동⁵⁾하고 임의적

5) 범주적 분류와 차원적 분류의 차이에 대해서는 권석만(2003). 현대이상심리학, 학지사, pp.114-115 참조.

으로 한 차원의 점수만을 반영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였다. 그 결과 네 가지 애착 차원의 점수 모두를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파일의 기저에 잠재해 있는 집단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는 애착 유형 연구 방법론의 측면에서 진일보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의 애착 유형 집단은 불안정-회피형, 안정-의존형, 및 양가형의 세 집단⁶⁾으로 구분되었고, 그 중 참여자의 2/3 정도가 ‘안정-의존형’에 속하며 이들은 비교적 양호한 정신건강지표와 자기 가치감 평가에서 자신 내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특징을 보였다. 이들은 자신에 대한 상이 긍정적이고 동시에 타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상을 보유하여 일반적으로는 안정형 애착을 유지하면서 필요시 타인에게 의존하는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정형 애착 유형의 사람들이 다른 애착 유형(예, 불안-양가형) 애착 유형의 사람들보다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자신감도 높으며 잘 적응한다는 결과를 보고하는 경험적 연구들과 일관적인 결과이다(Feeny & Noller, 1990; Hazan & Shaver, 1987).

이러한 안정형 애착 유형 집단과는 달리 다른 두 집단(양가형과 불안정-회피형)은 전반적으로 정신건강 지표에서 부적응적인 특징을 보였다. 먼저 ‘양가형’ 집단은 자기 가치감을 평가할 때 타인의 피드백에 예민하고 신체화, 불안, 적대감, 공포 불안, 편집증, 정신증, 우울 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정신건강과 적응의 측면에서 가장 고(高) 위험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애착 유형에 속한 대학생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 상황에 따라서 접근과 회피를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타인의 거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점이 여러 가지 부적응과 관련될 수 있다.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불안정-회피형’ 집단 역시 ‘양

6) 이 세 집단은 우연히 Hazan과 Shaver(1987)가 제안한 세 가지 애착 유형(회피형, 안정형, 불안-양가형)과 일면 유사한 특징을 보였으나 이 부분을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Hazan과 Shaver가 제안한 애착 유형은 본 연구에서처럼 애착 차원 점수 전체의 프로파일을 고려해서 도출된 것이 아니고 애착 유형 자체는 표본 특정적(sample-specific)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표 3. 집단 차이 비교

N=128

변인		SS	df	MS	F	사후검증
LEI	집단 간	1038.79	2	519.35	6.00**	1, 2 < 3
	집단내 오차	10817.97	125	86.54		
	Total	11856.68	127			
신체화	집단 간	11.07	2	5.54	15.06***	2 < 1, 3
	집단내 오차	45.95	125	.37		
	Total	57.02	127			
강박증	집단 간	14.91	2	7.46	13.23***	2 < 3
	집단내 오차	70.43	125	.56		
	Total	85.35	127			
대인예민성	집단 간	27.80	2	13.90	21.38***	1, 2 < 3
	집단내 오차	81.28	125	.65		
	Total	109.08	127			
우울증	집단 간	12.47	2	6.23	9.83***	2 < 3
	집단내 오차	79.24	125	.63		
	Total	91.71	127			
불안	집단 간	13.53	2	6.76	12.75***	2 < 1, 3
	집단내 오차	66.29	125	.53		
	Total	79.82	127			
적대감	집단 간	15.77	2	7.89	13.02***	2 < 1, 3
	집단내 오차	75.74	125	.61		
	Total	91.51	127			
공포불안	집단 간	8.30	2	4.15	10.50***	2 < 1, 3
	집단내 오차	49.36	125	.40		
	Total	57.65	127			
편집증	집단 간	14.95	2	7.48	19.19***	2 < 1, 3
	집단내 오차	48.71	125	.39		
	Total	63.66	127			
정신증	집단 간	11.59	2	5.80	14.86***	2 < 1, 3
	집단내 오차	48.75	125	.39		
	Total	60.34	127			

주. LEI = 자기 가치감 평가의 소재

가형'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다만 대인예민성과 외부의 평가에 대한 민감성의 측면에서 '양가형'보다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가형'이 대인간 (interpersonal) 및 대인내(intrapersonal) 스트레스 모두에 취약한 데 반해 '불안정-회피형'의 경우는 대인내 스트레스에는 취약하지만 대인간 스트레스(예, 대인 예민성 및 외부평가에 대한 민감성)에서는 '안정-의존형'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즉, 대인관계육구 자체가 적고 사회적 상황에서 철수(withdrawal) 함으로써 대인간 스트레스는 감소시키지만 내부의 우울, 불안 등은 여전히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세 가지 애착 유형 집단은 대인관계에서의 접근과 회피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안정-의존형' 집단은 자

신과 타인의 상에 대한 긍정을 바탕으로 대인관계에서 적절하게 접근하는 특징을, 이에 반해 ‘불안정-회피형’ 집단은 대인관계에서 철수를, 끝으로 ‘양가형’ 집단은 접근과 회피의 혼재로 인한 정신적 피로감을 반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후속연구에서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는 실제 대학교 생활지도 및 상담 장면에도 적용될 수 있다. 상담 및 심리 치료에서 내담자의 심리적 고통의 중심에는 내담자의 개별 특수한 애착유형이 존재한다(Eagle, 2006). 따라서 많은 상담자들이 내담자의 애착형태를 근거로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고 사례 개념화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인관계문제가 많은 대학생 내담자를 이해할 때 이들이 어떤 애착 유형에 속하는가를 고려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애착 관련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자연 발생적 집단들을 나누기 위해 잠재적 프로파일 분석을 사용했다. 대상을 서울 소재 소규모 대학생 집단으로 하여 시행한 연구이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 측면에서 제한적이다. 이는 잠재프로파일 분석결과가 표본 특정적(sample-specific)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연령별, 지역별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 결과를 타당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결과 중 ‘안정-의존형’ 집단에서 심리적으로 적응적이고 건강한 양상을 보인데 반해 ‘불안정-회피형’과 ‘양가형’ 집단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점이 대학생과는 상이한 표본(예, 내담자 혹은 환자 집단)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병리적 부모를 둔 자녀들의 애착유형이나 대학생 뿐 아니라 부부나, 부모-자녀 관계 등 보다 애착이 강하고 직접적으로 형성된 관계에서의 애착유형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또한 후속 연구로 애착 유형과 자존감 및 대처 방식 등 다른 적응 지표와의 관계를 탐색하여(예, Collins & Read, 1990; Lopez & Gormley, 2002) 보다 구체적이고 풍부한 집단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애착 유형을 파악할 때 성인들은 상호작용을 하는 상대의 특성이나 관계목적에 따라 다른 애착 유형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예

를 들어,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했고 관계에 대한 애착표상이 안정적인 사람일지라도, 매우 회피적인 이성친구와의 관계에서 몰입적인 애착행동을 보일 수도 있으며, 그 상황에서 애착을 측정한다면 안정과 몰입의 애착 유형이 그 개인 내에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Baldwin, Keelan, FehrEnns 및 Koh-Ranggrarajoo(1996) 등의 연구에 의하면 10가지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애착 유형을 분석한 결과, 참여자의 88%가 두 가지 이상의 애착 유형을 보고하고 47%는 세 가지 이상을 보고한 바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런 상황변인들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 김민정, 이동귀 (2007). 애착유형이 자기평가소재 및 정서 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담심리학회 대외 심포지엄 및 학술/사례발표 대회 논문집.
- 김혜진, 신현균, 홍창희 (2008). 성인애착유형, 특성분노 및 음주문제의 관계 : 분노표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7(3), 729-748.
- 신혜린, 이기학 (2008). 성인애착과 성별에 따른 대학생 사회불안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27(1), 139-159.
- 유상미, 이승연 (2008). 대학생의 스트레스, 부적응적 완벽주의, 자살사고의 관계 :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애착유형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학교, 5(2), 119-136.
- 장휘숙 (1997). 성인애착의 3범주 모델과 4범주 모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0, 123-138.
- Ainsworth, M. D. S., Blehar, M.,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 Baldwin, M. W., Keelan, J. P., FehrEnns, B., & Koh-Ranggrarajoo, E. (1996). Social-cognitive conceptualization of attachment working models :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 and *Social Psychology*, 71, 94-109.
- Bartholomew, K. (1990). Avoidance of intimacy : An attachment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 147-178.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artholomew, K., & Shaver, P. R. (1998). Method of assessing adult attachment. In J. A. Simpson & W. S. Rholes(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pp.25-45). New York : Guilford Press.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 Vol.1. Attachment*. New York :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 Vol.2. Separation : Anxiety and anger*. New York : Basic Books.
- Bowlby, J. (1979).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London : Tavistock.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 Vol.3. Loss :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 Basic Books.
- Brennan, K. A., & Morris, K. A. (1997). Attachment styles, self-esteem, and patterns of seeking feedback from romantic partner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 23-31.
- Bucur, D. R., & Lee, D -G. (2006, August). *Locus of Evaluation Measurement : Implications for Counseling Psychology*. Poster presented for presentation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ew Orleans.
- Burge, D., Hammen, C., Davila, J., Daley, S. E., Paley, B., Lindberg, N., Herzberg, D., 7 Rudolph, K. D. (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cognitions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late adolescent wome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1), 151-167.
- Bylsma, W. H., Cozzarelli, C., & Sumer, N. (1997). Relation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s and global self-esteem.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9, 1-16.
- Carmichael, C. L., & Reis, H. T. (2005). Attachment, sleep quality, and depressed affect. *Health psychology*, 24, 526-531.
- Chorpita, B. F., & Barlow, P. H. (1998). The development of anxiety : The role of control in the early environment. *Psychological Bulletin*, 124, 3-21.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Crowell, J., & Treboux, D. (1995) A review of adult attachment measures : Implications for theory and research. *Social Development*, 4, 294-327.
- Derogatis, L. R. (1977). *SCL-90R Manual*. Baltimore, MD : Clinical Psychometric Research.
- Derogatis, L. R., & Melisaratos, N. (1983). The brief symptom inventory : An introductory report. *Psychological Medicine*, 13(3), 595-605.
- Eagle, M. (2006). Attachment, psychotherapy, and assessment : A Commenta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6), 1086-1097.
- Feeney, J. A., & Noller, P. (1990). Attachment style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281-291.
- Griffin, D., & Bartholomew, K. (1994). Models of self and other : Fundamental dimensions underlying model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430-445.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azan, C., & Shaver, P. R. (1994). Attachment as an organizational framework for research on close relationships. *Psychological Inquiry*, 5, 1-22.
- Horowitz, L. M., Rosenburg, S. E., & Bartholomew, K. (1993). Interpersonal problems, attachment styles, and outcome in brief dynamic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 61, 549-560.
- Larose, S., Bernier, A., & Tarabulsy, G. M. (2005). Attachment state of mind, learning disposition, and academic performance during the college transition, *Development Psychology, 41*, 281-289.
- Lazarsfeld, P. F., & Henry, N. W. (1968). *Latent structure analysis*. Boston : Houghton Mill.
- Lee, D-G., Lee, S-R., & Park, H-J. (2008). Validation of Korean version of the locus of evaluation inventor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1)*, 65-82.
- Lopez, F. G., & Gormley, B. (2002). Stability and change in adult attachment style over the first-year college transition : Relations to self-confidence, coping, and distress patter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 355-364.
- Love, K. M., & Merdock, T. B. (2004). Attachment to parent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 An examination of young adult college students in intact families and step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8*, 600-608.
- Main, M., & Goldwyn, R. (1998). Adult Attachment Classification System.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McCrae, J. S., Chapman, M. V., & Christ, S. L. (2006). Profile of children investigated for sexual abuse :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symptoms and servic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6, 4*, 468-481.
- McLachlan, G. J., & Basford, K. E. (1988). *Mixture models : Inference and application to clustering*. New York : Marcel Dekker.
- Moss, E., & St-Laurent, D. (2001). Attachment at school age and academic performance. *Development Psychology, 37*, 863-874.
- Muthén, L. K., & Muthén, B. (2001). *Mplus : The comprehensive modeling program for applied researchers*. Los Angeles : Author.
- Pietromonaco, P. R., & Barrett, L. F. (2000). The internal working models concept : What do we really know about the self in relation to other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4(2)*, 155-175.
- Pietromonaco, P. R., & Feldman, Barrett, L. (1997b).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and daily social intera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409-1423.
- Rogers, C. R. (1948). Divergent trends in methods of improving adjustment. *The Harvard Educational Review, 18*, 209-219.
- Rogers, C. R. (1951). *Client-centered therapy*. Boston : Houghton-Mifflin Co.
- Schwarz, G. (1978). Estimating dimensions of a model. *The Annals of Statistics, 6*, 461-464.
- Vermunt, J. K., & Magidson, J. (2002). *Latent class cluster analysis*. In J. A. Hagenaars and A. L. McCutcheon (Eds.), *Applied latent class analysis*(pp.89-106).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ertue, F. M. (2003). From adaptive emotion to dysfunction : An attachment perspective on social anxiety disorde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7*, 170-191.
- Waters, E., & Deane, K. E. (1985). Defining and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 Q-methodology and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 41-65.
- Waters, E., Kondo-Ikemura, K., Posada, G., & Richters, J. (1991). Learning to love : Mechanisms and milestones. In M. Gunnar & L. A. Sroufe(Eds.), *Self processes and development*.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Vol.23, pp.217-255). Hillsdale, NJ : Erlbaum.
- Wei, M., Mallinckrodt, B., Larson, L. M., & Zaka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depressive symptoms, and validation from self versus others. *Journal of*

- Counseling Psychology*, 52, 368-377.
- Wei, M., Vogel, D. L., Ku, T. Y., & Zakalik, R. (2005).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negative mood, and interpersonal problems : The mediating roles of emotional reactivity and emotional cutof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14-24. [http : //www.sfu.ca/psyc/faculty/bartholomew/faq.htm](http://www.sfu.ca/psyc/faculty/bartholomew/faq.htm)

The Classification of Attachment Types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Dong-gwi Lee Su-Ran Lee Hye-Young Kim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naturally generated attachment groups of university students ($N = 128$) using a Latent Profile Analysis (LPA) methodology. As a result of the LPA employing the four attachment dimensions that Bartholomew (1990) conceptualized, three groups were naturally generated : (a) insecure-avoidant group, (b) secure-dependent group, and (c) ambivalent group. In order to examine th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three groups on indices of mental health and locus of evaluation, a MANOVA was conducted. As a result, the ambivalent and insecure-avoidant groups were maladaptive whereas the secure-dependent group was healthy and adaptive. Particularly, the ambivalent group was the most maladaptive displaying interpersonal sensitivity and external locus of evaluation.

Keywords: Attachment; Attachment types; Mental health; Locus of evaluation

1차원고 접수일 : 2008년 12월 8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09년 2월 13일
게재 확정일 : 2009년 2월 16일